**3월 삼일절** – 지구하 에피소드

(술집)

하아.. 황금 같은 공휴일에 알바라니

나만 알바를 안 빼주는 건 일부러 이러는 건가?

전부터 도대체 왜 나만 싫어하는 거지.,.  
(대충 오해품)

(공원-밤-)

**후 오늘도 고생했다!**

**뭔가 사장님께서 오해를 단단히 하신 모양인데…., 풀렸으면 됐지 뭐.**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급피곤해진다니까.

평소에 조그마한 오해, 갈등이 일어나도 피곤한 나는 어서 집을 가고싶을 뿐이었다.  
**어…, 근데 저 익숙한 실루엣은?**  
지구하잖아? 연락 준다면서 왜 연락은 없고... 그래도 지금은 마주치기 싫으니 얼른 지나가자.

어, 오빠! (화면 흔들림, 캐릭터 모습 X)

급하게 지나치려는 와중, 멀리서 큰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내가 나이를 알려준 적이 있던가?

오빠 안녕 안녕~!

멀리서도 알아보고 펄쩍펄쩍 뛰면서 큰소리로 부르는 거보면 지구하가 맞네...

그녀는 나에게 뛰어와서 말을 이었다.  
뭔가 기분 좋은 샴푸 향이 솔솔 난다.

어떻게 여기서 보지? 완전 대박 신기~  
(그냥 뭔가 지구하 성격에는 반말할거같아서 반말로 잡앗는데 존댓말로 바꿔도됨)  
  
**전개 1.** 나이는 어떻게 알고, 반말 왜 하냐고 물어봄(호감도 -0)  
 지구하는 당황하며 뭔가 그럴거 같았다며 장난 Www (반말권유?)  
 이야기를 이어가며 수영 학원을 갔다가 조깅 중이라고 같이 하자며 화제 전환

**전개 2.** 지구하에게 뭐하고 있었냐며 물어봄(호감도+0)

지구하는 수영 학원을 갔다가나온 뒤, 내일 학교 시험이 있어 체력 관리 겸 조깅 중 이였다고 같이 하자고 제안(자연스럽게 반말 유도)

* **수영학원에서 샤워를 해서 샴푸향이 나는 거엿슴  
  ex) 아 그래서 이 냄새가 났구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운동은 좀..**  
학교 사람도 아니고 어색한 사람이라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저번에 그렇게 준다던 세탁비는 도대체 언제 줄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폰도 뺏어가놓고선 연락 한통 없고**

아, 아! 미안해.. 당장은 못 줘.

진짜 진짜.., 생기자마자 바로 보낼게!!!!  
아이고, 시간이!!! 먼저 가볼게 ㅠㅎㅎ~!!! 안녕~!~!~!~!~!

그녀는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도망치듯 시간이 다 되었다며 어디론가 뛰어가버렸다.

이걸 믿어야 해, 말아야 해?

그래도 이런 날에도 내일 시험이랍시고 운동하는 게 멋지긴 하네…  
누구는 공휴일에 일했다고 피곤하다고 이러는데.

**의지 부족이다. 의 지 부 족!**

**그래도 아직 21살인데!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다~ 집이나 가자!**

**…**

**…**